

강소천의 아동희곡 연구*

홍창수**

국문초록

본고는 기존에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강소천의 아동 희곡을 연구하였다. 그가 아동희곡 창작과 아동극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첫 창작 아동희곡 「비바람은 지나고」가 공연되었던 1936년 12월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아동희곡을 쓰고 공연했다는 사실은 그의 아동희곡의 세계를 규정하는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그의 기독교 신앙은 그가 창작한, 대부분의 기독교 계통의 아동극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아동희곡의 첫 번째 부류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작품들이다. 「비바람은 지나가고」와 「박첨지와 산신령」은 신자와 비신자의 대립 구도를 설정하여 기독교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비신자를 회개시키고 미신을 타파하려는 기독교 선교와 계몽의식이 뚜렷하다. 「기다리던 짝따 할아버지」와 「붙잡힌 짝따클로스」는 산타의 선물에 욕심을 내는 꾸러기들이 자신의 욕심과 나쁜 행동을 반성하고 산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린이들이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인정을 담고 있다. 아동희곡의 두 번째 부류는 어린이에게 올바른 도덕과 심성을 전달하려는 교훈극이다. 「새파란 태양」은 친구의 잘못을 감싸는 배려심과 정직한 마음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보물찾기」는 보물찾기 놀이를 모티프로 삼아 물건의 지나친 소유욕을 문제 삼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강조한다.

* 본 학술논문은 2018년도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 교내지원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dramaway@korea.ac.kr

이상의 두 부류의 희곡들은 대부분이 다소 갑작스럽고 작위적인 결말로 끝나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비바람은 지나가고」, 「박첨지와 산신령」, 「기다리던 싹따 할아버지」, 「보물찾기」의 결말 처리 방식은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고 어린이-관객에게 작가의 메시지를 주입하기에 편리하다. 그러나 작가가 전도사-작가, 교사-작가의 위치에서 어린이-관객을 수동적인 계몽과 교화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단점을 노출한다.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아동희곡 「허수아비와 참새」는 이전 희곡들과는 달리 매우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계몽을 배제한 채 꾸러기인 아기 참새들과 어린이들이 장난치며 노는 순수한 유희의 세계를 그린 희극이자 우화극이다.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의 멜로디 차용과 사람이 직접 허수아비가 되는 변장놀이의 설정은 어린이-관객의 흥미와 재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관객을 계몽과 교화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작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즐기는 대상으로 보게 한다.

■ 주제어: 강소천, 아동희곡, 아동극, 크리스마스 연극, 교훈극, 우화극, 어린이-관객, 변장놀이, 「비바람은 지나가고」, 「보물찾기」, 「기다리던 싹따 할아버지」, 「붙잡힌 싹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선물」, 「허수아비와 참새」

목 차

- | | |
|------------------------|------------------------|
| 1. 문제 제기 | 3. 바른 윤리와 심성의 교훈극 |
| 2. 기독교의 절대성과 크리스마스 아동극 | 4. 계몽의 배제와 꾸러기들의 놀이 세계 |
| 1) 기독교의 절대성과 회개의 원리 | 5. 맺음말 |
| 2) 크리스마스 아동극과 산타의 의미 | |

1. 문제 제기

본 연구는 강소천의 아동희곡 연구를 목표로 한다. 강소천은 1937년 『동아일보』에 소년소설 「재봉선생」을 발표하면서 동화 작가로 출발하였

다. 그가 평생 쓴 작품은 동요 및 동시 약 300여 편, 동화와 소년 소설 약 213편, 아동극 11편, 수필 20여 편 등 550여 편에 이른다.¹ 일제 강점기, 해방 직후, 6·25 전쟁을 겪은 그는 험난했던 한국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가 남긴 작품들이 증명하듯, 강소천의 아동문학의 본령은 동화다. 강소천이 한 권의 동요 및 동시집을 발간한 것에 비해 18권 가량의 동화집을 발간한 사실만 보아도, 그가 아동문학의 갈래에 있어서 동화에 전념해왔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동화작가로서의 강소천의 독보적 위상은 그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까지 강소천과 그의 작품 세계와 관련된 학위 논문은 20여 편에 이른다.² 동요 및 동시를 다룬 2편의 논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는 작가론과, 동화 및 소년 소설의 작품세계에 집중되어 있다.

강소천 동화의 주요 연구는 1980년대에 드물게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구성, 문체, 현실인식과 환상/판타지 등 다양한 연구 관점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강소천 동화의 특성과 정신 세계를 밝혀내었다.³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마해송, 김요섭 작가의 동화와 함께 비교·분석되어 강소천 동화의 독특한 위상과 서정성이 규명되기도 하였다.⁴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동안의 강소천

1 박금숙, 「강소천 동화의 서지 및 개작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4.12, 4면.

2 최근까지 발표된 주요 논문들은 이 논고의 말미에 있는 '참고문헌' 참고.

3 주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남미영, 「강소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0.

공선희, 「강소천 동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박상재, 「한국 창작동화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김명희, 「한국동화의 환상성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오길주, 「한국동화문학의 현실인식 연구」, 카톨릭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4.

이선민, 「강소천 동화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4 김용희, 『韓國 創作童話의 形成過程과 構成原理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연구가 새롭게 탐구되고 정리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에 소홀히 했던 서지 정리와 유작 발굴 등의 방대한 실증 작업이 박사논문으로 결실을 거두는 가 하면,⁵ 강소천에 대한 평전⁶이나 연구 성과를 모은 연구서⁷가 발간되기도 했다. 이 경향은 그동안 많이 진척된 강소천 아동문학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라고 본다.

그러나 강소천 동화 연구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아동 희곡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강소천이 창작한 아동 희곡은 강소천의 동화와 비교했을 때 작품 숫자가 현저히 적을뿐더러, 서지 정리의 실증 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몇 편이나 남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금숙은 박사논문을 통해서 강소천의 아동극이 11편임을 언급하였다.⁸ 이 논문은 남아 있는 아동극의 편수를 밝혀주는 것은 동화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어서 아동희곡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강소천이 창작한 아동희곡이 10편이라는 기본 사실로부터 연구를 수행한다.⁹

분석 대상으로 삼으려는 10편의 아동희곡은 최초로 지면에 발표되었거나 자료집에 남아 있는 원고들이다. 발표 순서에 따라 열거하면 다음과 같

5 박금숙, 「강소천 동화의 서지 및 개작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4.12.

6 박덕규, 『강소천 평전』, 교학사, 2015.6.

7 김종희·김용희 편, 『강소천』, 새미, 2015.5.

8 박금숙, 「강소천 동화의 서지 및 개작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4.12, 4면. 박금숙은 1963년 『강소천문학전집』(배영사)에 발표된 「노랑나비의 꿈」을 아동극으로 보았으나, 정확히 말해 이것은 라디오 드라마 대본이다. 희곡에 관한 한, 강소천은 극이 시작하기 전에, 때와 장소, 무대 지시문과 등장인물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다. 이와는 달리 「노랑나비의 꿈」에는 이런 정보들이 전혀 없고, 그 대신 장면 전환에 필요한 음악과 효과음의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2006.

홍의정, 「강소천 동화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정유경, 「한국 현대 판타지 동화의 문학 교육적 수용 연구」, 춘천고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김효진, 「강소천 동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9 강소천의 모든 자료에서 그가 발표하거나 소장해놓은 아동희곡은 총14편이지만, 동일하거나 개작한 작품들을 제외하면 총10편이다.

다. 이 희곡들 중에는 최초로 발표된 희곡이 이후에 재수록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발표된 이본들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최초의 원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비바람은 지나고」(1938.12),¹⁰ 「새파란 태양」(1954),¹¹ 「기다리던 산파할아버지」(1954),¹² 「보물찾기」(1954),¹³ 「박첨지와 산신령」(1954~1955년 추정),¹⁴ 「또 하나의 다른 크리스마스」(1954~1955년 추정),¹⁵ 각색 「크리스마스 송가」(1954~1955년 추정),¹⁶ 「크리스마스 선물」(1957년 추정),¹⁷ 「불잡힌 썬타클로스」(1960~1962년 추정),¹⁸ 「허수아비와 참새」(1961.12).¹⁹

현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그의 아동희곡 창작과 아동극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1936년 12월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 1938년 12월 『아이생활』에 발표된, 그의 첫 아동희곡 「비바람은 지나고」의 작품 후기에는 이 작품이 “再昨年 크리스마스, 間島 龍井 東教會 少年勉勵會에서 上演한 것”²⁰이라고 적혀 있다. 이 작품의 공연 시기에 강소천이 주일학교 교사의 신분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크리스마스 날에 공연된 것으로 보아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²¹ 모태 신앙을 가진 강소천은 할아버지 강봉규가 교회 장로로 활동했던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기에²² 어린이들을 대상

10 1938년 12월 『아이생활』에 실린 이 작품에는 제3장에서 제5장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그 이전에 발간된 호(號)는 현전하지 않아 제1장과 제2장 역시 없다.

11 『강소천 문학선』, 경진사, 1954.

12 『강소천 문학선』, 경진사, 1954.

13 『강소천 문학선』, 경진사, 1954.

14 『강소천아동문학 스크랩북』 3권.

15 『강소천아동문학 스크랩북』 3권.

16 『강소천아동문학 스크랩북』 3권.

17 『강소천아동문학 스크랩북』 9권.

18 『강소천아동문학 스크랩북』 14권.

19 『강소천 아동문학독본』, 을유문화사, 1961.12.

20 「附記」, 『아이생활』, 1938.12, 43면.

21 강소천의 조카 강경규의 증언에 의하면, 강소천은 1937년 3월 영생교보를 졸업하고 고원에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던 시기에 동화 창작에 몰두하면서 동극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 많은 동화를 구상하시고 그것을 들려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는 동극도 하셨어요.”, 박덕규, 『강소천 평전』, 교학사, 2015.6, 131면 재인용.

22 박덕규, 위의 책, 16~17면, 28~29면 참고.

으로 기독교 교리와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주일학교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주일학교에서 행사 기념으로 공연된 연극을 관람했을 것이라 짐작된다.²³ 그의 아동희곡 총10편 중 기독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작품들이 7편이나 되고 그 작품들이 ‘크리스마스’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작가와 주일학교, 작가와 교회 활동과의 깊은 연관성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는 방증이 된다. 강소천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동극을 썼다는 것은, 강소천의 아동극 세계를 규정하는 출발점이자 핵심에 해당된다.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대표 동화작가로 칭송되는 강소천의 아동 희곡은 과연 어떠한가? 동화에 주력했던 강소천은 어떤 계기로 아동희곡에 관심을 가졌고 극작을 했으며, 어린이 관객에게 보여주려 했던 작품 세계는 무엇인가? 또한 아동극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추구하고 있는가? 과연 강소천이 평가 받고 있는 동화작가로서의 명성에 견줄 정도로 아동극작가로서도 동일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그의 아동희곡은 작가의 세계관과 어린이-관객에 대한 태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어린이-관객에 대한 태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동극은 성인극과는 매우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질을 지닌, 독립 예술 형식”²⁴이기 때문이다. “아동극은 단순화된 성인극이 아니다. 자체의 원동력과 보상을 갖고 있다. 아동극의 특성은 어린이가 흥미와 상상력의 새로

23 참고로 일제강점기에 주일학교의 기원은, 한국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역사를 다섯 시기로 나누었을 때,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된 제1기, 즉 ‘개신교의 수용과 민족교육의 형성’(1885-1910) 시기로 본다. 제2기(1910년에서 1919년)에는 일제의 학교교육과 함께 기독교 교육도 탄압을 받았으나, 이후 3·1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의 확산과 일본의 동화정책과 탄압으로 교회가 정치적인 노선을 벗어나 주일학교 운동을 확장하여 민족을 계몽해보고자 하였다라고 한다. 장종철,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1991), 338~341면 참고.

24 David Wood · Janet Grant, *Theatre for Children*, Ivan R. Dee: Chicago, 1999, 5면. “Theatre for children is a separate art form with qualities that make it quite distinct from adult theatre.”

운 세계로 문을 연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²⁵ 이런 아동극에 대해 작가가 어린이-관객을 어떤 존재, 즉 범박하게 말해 극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느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주류를 이루는 부분은 기독교 계몽이나 선교를 위한 소위 ‘크리스마스 아동극’이다. 다른 하나는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문제를 다루며 바른 심성을 가르치는 교훈극이다. 세 번째는 한 편에 불과하지만 이전 작품들과는 전혀 다르게 꾸러기들의 놀이 세계를 우화의 형식으로 만든 극이다.

2. 기독교의 절대성과 크리스마스 아동극

기독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아동희곡에는 「비바람은 지나고」(1938.12), 「기다리던 산따할아버지」(1954), 「박첨지와 산신령」(1954~1955년 추정), 「또 하나의 다른 크리스마스」(1954~1955년 추정), 각색 「크리스마스 송가」(1954~1955년 추정), 「크리스마스 선물」(1957년 추정), 「붙잡힌 썬타클로스」(1960~1962년 추정) 등 7작품이 있다. 첫 아동희곡의 발표 시기가 1938년 12월이고 두 번째 희곡의 발표 시기가 1954년이어서 그 사이에 약 15년간이란 꽤 긴 공백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시기가 일제의 탄압이 가혹해졌던 1940년대 전후에서 시작하여 1945년 해방을 지나 1948년 분단, 1950~1953년까지의 6·25 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어둡고 혼란과 전쟁의 시기였음을 고려한다면, 공연을 위한 아동희곡의 창작이 용이하지는

²⁵ David Wood · Janet Grant, 위의 책, 같은 곳. “It is not simplified adult theatre; it has its own dynamics and its own rewards. Quality theatre for children is valuable in that it opens the door for children to a new world of excitement and imagination.”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대부분의 아동희곡은 기독교 신앙과 관련을 맺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기독교 계열의 아동희곡들은 모두 크리스마스와 관련되어 있다. 제목에 ‘크리스마스’, ‘산타’ 또는 ‘산따’라고 써어 있는 것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비바람은 지나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크리스마스 날에 공연되었고, 크리스마스와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제목의 「박첨지와 산신령」은 제목 앞에 ‘크리스마스극’이라고 적혀 있으며, 작가가 작품 후기에 “이 연극은 농촌에서 크리스마쓰 때 쓰기 위해 만든 것”²⁶이라고 밝히고 있어 크리스마스 행사와의 관련성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볼 때, 거명한 7편의 아동희곡은 모두 기독교 연극이면서 어린이-관객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축일의 행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크리스마스 아동극’에 속한다.

1) 기독교의 절대성과 회개의 원리

강소천의 첫 아동희곡인 「비바람은 지나고」는 1930년대의 궁핍한 현실을 배경으로 삼아 기독교의 신실한 신자인 주인공 을남이 죄를 뒤집어쓰고 고통을 당하는 심리와, 그 고통을 신앙심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진지하게 극화한 것이다. 이 희곡은 다른 작품들이 가볍고 경쾌한 일상의 해프닝을 극화한 것과 비교하면, 극양식의 톤과 색깔이 무겁다.

이 작품은 총 다섯 경 중 3경, 4경, 5경만이 1938년 12월 『아이생활』에

²⁶ 작가의 작품 후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극은 농촌에서 크리스마쓰 때 쓰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지면 관계로 되도록 대사를 짧게 그리고 많이 생략했습니다. 실지로 상연할 때는 박첨지 부부가 크리스마쓰 축하 시간 전에 교회에 가노라고 야단법석하는 장면을 한 장 더 붙이면 크리스마쓰 노래와 함께 좀더 호화로운 장면을 꾸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작자)” 「박첨지와 산신령」, 『강소천아동문학 스크랩북』 3권, 62면.

실려 있다. 당연히 『아이생활』의 이전 호에 1, 2경이 실려야 마땅하나 현 전하지 않는다. 3경에서 5경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 1, 2경에 벌어진 상황을 짐작하면서 전체의 플롯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자 집 아들인 삼성은 학교에 내야 할 월사금을 잃어버리자 가난한 어부의 아들인 을남이 자신의 월사금을 훔친 도둑이라며 을남에게 누명을 씌운다. 이 사건을 접한 선생님은 을남을 혼내고 한 달간 정학을 시킨다. 기독교를 믿는 신실한 어린이인 을남은 부당한 처벌에 고통을 겪으며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괴로워한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을남은 더욱 괴로워한다. 한편 삼성은 자신을 따르는 친구들과 함께 거지 장님인 정희 등 니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긴다. 그런데 삼성은 어린이들과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음이 깨져 죽을 위험에 처하는데 을남의 아버지가 그를 구출해준다. 삼성은 아이들과 함께 을남과 정희에게 잘못을 용서하고 회개하며 예배당에 갈 것을 결심한다.

이 희곡은 신앙인과 비신앙인,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인물 대립 구도를 취하고 있다. 을남과 어부인 가족, 거지 장님 정희는 모두 가난하나 예배당을 다니는 기독교 신자다. 이에 반해 삼성은 부자 집 아들이므로 친구들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며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대립은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대립으로 의미화된다. 그리고 비신자는 신자를 괴롭혔으나 신자는 비신자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비신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한다. 부정적인 인물인 삼성은 악행을 저질렀으나 회개하여 신앙을 갖는 인물로 변한다. 그런데 이 희곡의 문제는 을남의 누명이 을남의 노력에 의해 벗겨지지 않고 을남 아버지가 삼성을 구출한다는 외부의 사건에 의해 벗겨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확히 말해 극의 플롯을 약화시키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²⁷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극 자체의 내적인 행동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神)의 등

장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 사건을 결말짓는 기법을 말한다. 이 결합은 이 작품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즉 누명을 쓰게 된 을남의 심정을 담은 독백과도 연관되어 잘 드러난다.

을남이 - ……(전략)…… 그러나 어쩌면 좋단 말이나. 도둑놈이 되었구나. 애
매한 도둑놈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구나. 월사금 도둑놈 - (사이) 나
는 오늘된 모든 일이 삼성의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내 깨끗한 마음은 오직 하느님이 아실뿐이다. 참는자에
게 복이 있다고 하셨다. 참자. 참자. 꼭 참자. 참고 견디면 언제나 하
느님께서 이 어긋난 누명을 벗겨 주시겠지 그러나 병석에 계신 어머
님께서 이런 소리를 들으신다면 -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그리고 고
기잡으러 강에 나가신 아버지가 아신다면…… (느껴 운다) 우리집이
비록 가난할지언정 나는 남의 연필한게 고무하나 훔쳐본일이 없다.
……(후략)……²⁸

을남은 독백에서 자신의 깨끗한 마음을 하느님이 알고 있고 참고 인내
하면 하느님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표현한다. 을
남은 이와 같이 종교적 신념만 강하게 드러났을 뿐 사건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주인공이 직면한 시련이 외부의 힘과 작용에 의
해 해결된다는 결말은 플롯상의 적지 않은 결함이다. 이 결함에도 예수의
탄신일인 크리스마스 날의 기념 공연에서 계몽과 선교의 메시지는 분명히

27 '마키나에서 등장하는 신'이란 용어로서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서 마키나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플롯의 결말을 위하여 에우리피데스에 의해 신이 자주 이용되었다. 이처럼 신의 등장을 통해 고
안된 결말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가 생겨났다 한다. 진준택·홍창수 역, 『연극의 역사』 1, 연극과
인간, 2003, 70면.

28 「비바람은 지나고」, 『아이생활』, 1938.12, 36면.

전달된다. 기독교를 신봉하는 신자의 진실성이 승리하고 비신자가 회개하고 기독교에 귀의한다는 것이다.

「비바람은 지나고」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이라면, 「박첨지와 산신령」은 가볍고 경쾌한 희극이다. 박첨지는 기독교를 믿지 않고 산신령 같은 민간신앙을 신봉하는 인물이다. 산신령에게 제를 지내며 ‘고수래’를 하고 소위 ‘예수쟁이’를 싫어한다. 이에 반해 어린이들은 기독교를 믿는 모두 주일학교 학생들이다. 그들은 소위 ‘미신덩이’ 박첨지를 위해 미신에서 해방시키자고 결의한다. 창덕은 박첨지가 신봉하는 산신령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순진한 박첨지를 끌려줄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가게 한다. 창덕은 박첨지에게 산신령은 늙고 쇠약하여 예수쟁이를 피해 산속에 갈 것이니 예배당으로 이끌게 한다. 박첨지는 “신령님 죽어도 저는 예수쟁이들 틈에 끼기는 싫어요”²⁹라고 산신령의 명령을 거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산신령의 명령을 따른다.

이 작품은 산신령 신앙을 미신으로 간주하여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계몽 희극이다.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폄하하고 산신령을 믿는 어른을 어리석은 인물로 설정하고,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들을 바르고 지혜로운 인물로 설정하였다. 이 설정은 기독교를 유일하고 진정한 종교로 보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에 가능하다. 산신령의 목소리 흉내 내기는 상대가 속아 넘어간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재미있는 설정이다. 그리고 어른이 어린이에게 교화하고 훈계하는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어린이-관객에게 어떤 통쾌함을 선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순진한 어른을 회개시켜 개종까지 하게 만든다는 교화의 방식과 결말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다소 작위적인 인상이 짙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미신 타파와 기독교

29 「박첨지와 산신령」, 『강소천아동문학 스크랩북』 3권, 62면.

교의 우월성이나 절대성이 당연하다고 해도, 또한 아무리 어린이-관객을 대상으로 펼쳐 보이는 아동극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해도, 어린이들의 장난기 어린 행동에 의해 순진한 어른이 놀림을 당하고 개종까지 결심한다는 것은 선교와 계몽의 방식이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다음의 대사에서 보듯, 이에 대해 어린이들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 이 작품의 문제다.

덕재 = 어땠든 박첨지 내외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나오게 될테니 기쁜일이지 뭐냐?

명수 = 그렇지만 속여서 교회에 나오게 한다는 건 그닥지 않다 애!

덕재 = 자 인젠 크리스마스 츄리를 찍어가지고 교회당으로 가자³⁰

기독교의 절대성을 대전제로 삼은 두 작품은 각각 극양식의 톤과 색깔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착하거나 지혜로운 신자와 나쁜거나 어리석은 비신자의 인물 대립 구도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기독교 신자는 부당하게 고통을 겪지만 결국에는 비신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회개의 원리가 작동하는 결말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계몽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지나쳐 미숙한 결말 처리의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비바람은 지나고」에서는 아버지가 삼성을 구출하는 행위가 갈등을 해결한다. 「박첨지와 산신령」에서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박첨지가 산신령의 말을 듣고 쉽게 예배당으로 간다.

30 「박첨지와 산신령」, 위의 책, 같은 곳.

2) 크리스마스 아동극과 산타의 의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종교다. 따라서 예수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는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강소천의 기독교계 아동희곡 중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희곡들은 어린이-관객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간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탄생 축일이지만 착한 어린이에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몰래 선물을 갖다준다는, 기쁜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강소천은 이러한 어린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작품마다 산타클로스를 등장시키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소재로 삼아 산타클로스의 존재와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되새기게 한다.

제목 앞에 ‘대화극’³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또 하나 다른 크리스마스」에서 각 인물들은 각각 자신들이 예수 탄생과 관련되어 있음을 자랑한다. 약대는 예수 탄생 시 동방박사 세 사람을 태워서 왔다고 자랑한다. 닭은 그때 아기 예수가 잠이 깰까봐 새벽을 알리기 위해 자지 않았다고 한다. 양은 자신이 제일 바보라 생각한다면서 그 근거로 세례 요한도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³²고 했다고 한다. 말은 마굿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했으니, 말의 조상들이 말구유를 예수님의 침대로 제공했다고 한다. 그러자 양은 예수 탄생을 가장 먼저 안 것은 별인데, 별은 자랑 안한다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놀리고 병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³³라고 말한다.

31 작가가 ‘대화극’이라 지칭한 것은 작품 첫면의 삽화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삽화에는 어린이들이 동물들의 얼굴과 별 모양의 탈을 머리에 쓰고 관객을 향해 반원 형태로 펼쳐진 의자들에 앉아 있다. 극의 마지막에 “마지막에 「우리 구주 나신 날」 찬송가를 부르며 춤출 때 막.”(81면)이라 하여 춤과 노래가 있긴 하나 거의 전체가 등장인물들이 별다른 움직임이나 행동 없이 제자리에 앉거나 서서 자기 차례만 오면 낭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32 「또 하나 다른 크리스마스」, 『강소천아동문학 스크랩북』 3권, 79면.

작가는 예수 탄생과 관련된 일화에서 동물과 사물의 모티프를 가져온다. 동물들을 의인화하여 각각 자신들이 예수와 관련 있는 인물임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놀리고 병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역설한다. 동물 우화를 통해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평이한 대화극 형식의 성극이다.

「기다리던 싹파 할아버지」와 「붙잡힌 싹타클로스」는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받고 싶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작품의 시간 배경은 모두 ‘크리스마스 이브’로서 동일하다. 공간 배경 역시 각각 ‘시골 외딴은 언덕길’과 ‘조그만 도시의 거리로 들어오는 고갯길’로서 구체적인 지형의 차이가 있긴 하나, 두 곳 모두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지점으로서의 길이라는 점이 유사하다.

「기다리던 싹파 할아버지」에서 순희와 아이들 세 명은 산타 할아버지로 부터 선물을 받기를 바라며 산타클로스를 기다린다. 누더기를 짚어지고 다리를 저는 거지 할아버지가 산타일리 없다는, 아이들의 편견과 무시의 태도를 문제 삼는다. 그 후에 거지 할머니가 등장하는데, 이를 측은히 여긴 순희가 그녀를 부축하는데 반해, 아이들은 그녀를 산타가 아니라며 무시했다가 명수를 통해 그녀가 산타였음을 알고 스스로를 반성한다.

명수 잠을 자는 게 뭐냐! 여짓껏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앉아 산따글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우리 집은 길가이니까. 문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을 지키고 있었거든. 내가 산따글로스 할아버지를 보자, 곧 모자

33 「또 하나 다른 크리스마스」, 위의 책, 81면.

를 쓰고, 외투를 입고 따라나섰거든. 그냥 나왔더면 만날 걸 그랬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어찌도 빠른지 단숨에 언덕 밑을 주루루 미끌어지듯 내려가 버리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따라오니……

아이3 응응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았다는 듯) 인제 알았다. 인제 그 할머니가 바로 그 산따 할아버지였어. 산따 할아버지라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 모양을 감추는 거래. 그러니까, 거지 할머니 모양을 하고 우리 앞을 지나간 거야.

————-(중략)————

아이1 자, 우리도 인젠 집으로 돌아가자. 인젠 더 산따 할아버지를 만나러 예를 쓰지 말자. 그 할아버지가 찾아주시기를 조용히 기다리자.

아이2 참말, 네 말이 맞다. 산따 할아버지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신 거야. 자어서 가서 편히들 자고, 기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자.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머리맡을 산따 할아버지가 찾아 오실지도 모른다.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결국 손해야.³⁴(밑줄-원문)

이 작품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 산타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희극적인 상상력을 극화한 것이다. 이 희곡을 통해 작가는 어린이-관객에게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와 선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게 한다.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계”시는 존재이고 어린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산타 할아버지는 아이들 앞에 거지 할아버지와 거지 할머니 같이 누추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인호처럼 병들고 나약하고 가난한

34 「기다리던 산따 할아버지」, 『강소천 문학선』, 경진사, 1954, 214~215면.

사람들을 돕는 어린이가 되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기다리던 썬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받기 위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극화했다면, 「붙잡힌 썬타클로스」는 산타 할아버지로 변장하는 변장놀이를 통해 벌어지는 희극적인 해프닝을 극화했다. 이 작품은 산타로 변장한 창덕이 영남이와 춘식이가 선물을 빼앗으려는 나쁜 행동을 막고, 평소 행실이 나쁜 영남이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며, 남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바로 보게 한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일종의 연극인 ‘변장놀이’로서 극에 재미를 붙여넣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극적인 장치다.

영남이 = (조용히) 나도 알아, 어떻게 정말 좋은 연극이었어 연극이라기보다, 잘된 일이었어. 정말 난 창덕이에게 너무 미안한 짓을 많이 했어. 언제나 싱글벙글 웃고 말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했다고 생각해³⁵

영남이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자, 창덕이는 “자, 이제 이 옷을 입고, 이 모자를 쓰고 이 수염을 달고 또 누구의 마음을 고쳐 주러갈까?”³⁶라고 말한다. 산타 할아버지로 변장하는 연극놀이는 타인을 속일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이용될 경우, 오락의 차원에서 놀람과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산타의 권위와 영험을 끌어들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마음이나 행동을 고치도록 유도해주는 치유의 기능도 한다. 그러나 그 훈계와 치유의 방식은 어린이의 잘못을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꾸짖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유쾌하게 지적하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35 「붙잡힌 썬타클로스」, 『강소천아동문학 스크랩북』 14권, 57면.

36 「붙잡힌 썬타클로스」, 위의 책, 같은 곳.

희극적인 경쾌함을 지니고 있다.

한편 「크리스마스 선물」³⁷에서는 앞의 작품들과는 달리 어린이들의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강조한다. 이 작품은 크리스마스 선물인 장갑이 여러 명에게 연이어 전달되어 가난한 삶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훈훈한 인정과 사랑을 느끼게 한다. 극이 시작되면 미옥과 경희는 장갑을 각각 한쪽만 끼고 있고, 신문팔이 춘식은 손을 호호 불며 등장한다. 추운 겨울 바깥에서 두 인물이 장갑을 각각 한쪽씩 끼고 있는 모습이나 춘식이 손을 호호 부는 모습은 그 자체로서 ‘결핍’과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 도입부의 이 배우지시문은 극의 소재인 장갑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리라는 암시를 준다.

미옥의 언니 미경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전날 밤에 두 켤레 장갑을 미옥에게 선물한다. 미옥은 그중 장갑 한 켤레를 경희에게 선물했는데, 후에 그 장갑을 춘식이 끼고 있음을 발견한다. 미옥이 그 경위와 전달 경로를 살폈더니 다음과 같다. 장갑을 선물 받은 경희는 장갑도 없이 신문팔이 하는, 춘희의 동생이 생각이 나서 장갑과 양말을 춘희의 마당에다 몰래 두고 가버렸고 뒤늦게 이것을 안 춘희는 산타 할아버지가 준 것이라며 춘식에게 전한다. 이 작품의 주제는 미경이 미옥에게 알려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³⁸는 성경구절로 함축된다.

강소천 아동희곡의 지배적인 특징은 크리스마스 아동극에 있다. 그의 크리스마스 아동극에는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보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

37 아동극 「크리스마스 선물」, 『강소천 동화집』. 지금까지는 정확한 출전을 알 수 없어, 『스크랩북』 9권(1957년 발표 추정)으로 출전을 삼았으나, 『강소천 동화집』의 수록작으로 보는 근거는 작품의 말미의 하단에 ‘강소천 동화집 200환’이라는 광고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크랩북』 9권에는 연출자가 ‘이상만 연출’로 표기되어 있다.

38 「크리스마스 선물」, 『강소천 아동문학 스크랩북』 9권, 36면.

지만, 그 저변에는 기독교 선교와 계몽이 깔려 있다. 이점에서 그는 작가 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선교자다. 기독교를 선교하는 작가는 어린이-관객에게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친숙한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끌어들이와 은연 중에 『성경』의 말씀과 보편적 진리인 사랑을 전한다. 이 산물들은 작가 강소천의 기독교 신앙의 극화이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려는 선교의 드라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동시에 기독교를 벗어난, 어린이들의 생활 및 상상의 세계에 대한 상대적 관심과 폭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바른 윤리와 심성의 교훈극

그의 희곡들 중 「새파란 태양」과 「보물찾기」는 각각 학교 교실과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녀야 할 바른 윤리와 심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교훈극이다.

「새파란 태양」은 종환의 글 ‘새파란 태양’에서 비롯된 학급 친구들 간의 정직과 배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선생님은 종환의 글 ‘새파란 태양’을 읽어주며, 이렇게 비사실적인 제목의 글이 나오게 된 사연과, 좋은 글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말한다. 종환은 짝인 영철에게 붉은 크레용을 빌리고 싶었지만, 영철이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빌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종환이 자기 시험 답안지를 훑쳐보려는 영철을 막자 영철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종환이는 붉은 크레용을 빌리지 못 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글의 사연은 이 희곡의 전사(前史)로서 하나의 선동적인 사건에 해당된다. 선동적인 사건은 극이 시작하기 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³⁹으로서 극의 중심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다. 따라서 이 작품의 중심 갈등은 종환의 사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철이 꾸

지람을 들을까봐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중환의 배려심과, 자신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려는 중환을 위해 영철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에서 발생한다. 글의 사연만을 읽은 선생님은 처음에 영철을 나쁘게 생각했으나, 중환에게 크레용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영철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바꾼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좋은 글을 정의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선생님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좋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아무리 중환이에게 재주가 있다 해도, 없는 일을 이렇게 꾸며 내지는 못했을 거요. 그러니깐, 좋은 글이란 언제나 정직하게 써야 하는 것이요. 굉장히 좋은 글을 써 보려고 애를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⁴⁰

선생님은 좋은 글, 좋은 그림은 모두 좋은 마음, 정직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남의 것을 베껴 쓰는 행위는 물론,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말한다. 정직한 마음에서 비롯된 정직한 글이 좋은 글이라는 정의는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적는 일기나 산문 등에는 부합되지만, 시나 소설처럼 상상력과 허구가 허용되는 문학예술에 모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점에서 다소 경직된 측면이 있긴 하나, 작가는 선생님을 등장시켜 친구를 감싸는 배려심과, 정직한 마음을 강조한다.

「보물찾기」는 친구를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영자의 생일날에 여러 친구들이 모여 보물찾기를 하다가 다툼이 벌어지면서 물건에 대한 소유욕과 배려심의 문제를 제기한다. 보물찾기는 ‘파

39 Louis E. Catron 저, 홍창수 역, 『희곡 쓰기의 즐거움』, 작가, 2011, 178면.

40 「보물찾기」, 『강소천 문학선』, 경진사, 1954, 204면.

랑새’, ‘성공’, ‘노력’이라고 각각 적힌 종이들과 백지 두 장을 뜯 곳곳에 숨겨 놓고, 친구들이 이것들을 찾으면 각각에 상응하는 크레용, 노트, 연필을 상품으로 받는 놀이다. 그런데 이 보물찾기에서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다. 욕심 많은 인호는 한 장도 못 찾고, 정희는 두 장을 찾게 되어 한 장을 인호에게 건넸는데, 인호의 종이에는 ‘파랑새’라고 적혀 있고, 정희는 정작 백지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호는 크레용을 갖게 되었고 정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명순과 친구들이 인호에게 ‘파랑새’라고 적힌 종이를 원래 입자였던 정희에게 돌려주라고 분위기를 몰아가자, 인호는 화를 내고 크레용을 집어던지고, 생일 파티 분위기는 갑자기 험악해진다.

영자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아. 정희도 아무 말이 없는데……

명순이 그렇지만 정희도 저렇게 섭섭한 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정희 누가 섭섭한 표정을 하고 있지? 난 별 소릴 다 하는구나.

덕남이 나 갈아선 못 가져.

명순이 나 갈아도 못 가져.

인호 왜 너희들이 더 야단이나? 찡구 까블구 야단이야? 부러우면 그저 부럽다고 해. 이 따위 크레용은 더러워서 가지래도 안 가질 테다.

(탁 집어 뿌린다.)

——(중략)——

인호 난 집으로 그만 갈 테야.

명순이 애 인호야 참아.

영자 (나오며) 자, 정희야, 이걸 뜯어봐라. 이걸 사실 오늘 저녁 네게 내가 따로 선사하려던 것이었다. 이 속에 든 편지를 읽어 보면 알 테지만, 이제 내가 오늘 생일 기념으로 네게 주는 거야. 인호 것과 똑 같은 거야.⁴¹

인호와 친구들 간의 갈등은 정희를 위해 영자가 미리 준비한 과랑새 종이와 크레용 선물로 해결된다. 영자의 선물로 갈등이 사라지고 극이 종결된다는 것은 다소 작위적이다. 종이를 가진 정희가 못 가진 인호를 배려하고, 부유한 영자가 가난한 정희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은 자신보다 못한 타인에 대한 양보이고 배려이며 사랑의 행위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드라마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영자가 정희에게 건넨 선물은 갈등 상황을 쉽게 봉합하여 극을 빨리 마무리하고 결말의 메시지를 유도하는 인상을 준다. 이런 결말 처리 방식은 계몽을 강조한, 강소천 아동희곡의 공통적인 결함이다. 강소천은 드라마에서 불거진 갈등을 개연성 있는, 극적인 행동(dramatic action)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외부의 도움 등으로 쉽게 봉합하고 주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상의 두 작품에도 크리스마스 아동극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작가가 어린이-관객에게 전하는 교훈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길 수 있는 잘못이나 악행, 거짓이나 욕심 등의 부정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에 주의를 주면서 정직과 배려라는 도덕성을 강조한다. 이때 어린이-관객은 수동적으로 교사의 메시지를 전달 받는, 도덕적인 감화나 교화의 대상일 뿐, 오락의 정신으로 연극에 참여하고 즐기는 ‘능동적인 참여자’(active participants)⁴²가 되지 못한다. 이점에서 다음에 다룰 그의 아동희곡 「허수아비와 참새」는 이전의 작품들과는 사뭇 다르다.

41 「보물찾기」, 위의 책, 193~194면.

42 David Wood · Janet Grant, Theatre for Children, Ivan R. Dee: Chicago, 1999, 16면 참고.

4. 계몽의 배제와 꾸러기들의 놀이 세계

1961년 12월 『강소천 아동문학독본』(을유문화사)에 실린 「허수아비와 참새」는 강소천 아동회곡 중에서 가장 독특한 작품이다. 이전의 작품들과 달리, 작가는 어떻게 이런 꾸러기들이 천진난만하게 놀며 즐기는 세계를 극화할 수 있었을까.

이 작품은 원래 1953년 『여름공부』에 발표된 동화 「아기 참새 삼 형제」의 네 번째 개작본이다.⁴³ 「아기 참새 삼 형제」가 허수아비를 매개로 아기 참새 삼 형제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다뤘다면, 제목, 주제, 내용이 완전히 바뀐 아동회곡 「허수아비와 참새」는 허수아비를 매개로 아기 참새들과 아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다뤘다.

「허수아비와 참새」는 아이들과 아기 참새들이 대화를 나누는 우화의 세계를 극화한 것이다. 늦게 일어나 엄마한테 꾸중 들으며 등교하거나 참새들에게 돌을 던지는 아이들도 장난꾸러기들이지만 어른 참새의 말을 듣지 않고 집밖을 나와 세상 구경을 하는 아기 참새들도 말쑥꾸러기들이다. 꾸러기는 강소천의 동화를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는 인물상으로서 어린이 독자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며, 부정 혹은 긍정의 존재가 아닌 어린이의 특성으로 작용할 뿐이다.⁴⁴ 동화 속 꾸러기의 인물 특성은 「허수아비와 참

43 박금숙에 의하면, 원본과 개작본의 제목과 출전은 다음과 같다. 원본: 「아기 참새 삼 형제」(『여름공부』, 1953) → 개작1본: 「아기 참새 삼형제」(『꽃신』, 문교사) → 개작2본: 「참새 삼형제」(『국어교과서 2-1』, 1955) → 개작3본: 「참새 삼 형제」(『잃어버렸던 나』, 배영사). 박금숙은 원본과 개작본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제목이 「아기 참새 삼 형제」로 나오는 것은 원본, 개작1본, 개작4본이다. 원본과 개작1본을 비교해 보면, 몇 군데의 단어가 수정되었고, 문장이 삭제된 곳이 있다. 또 제목이 「참새 삼 형제」로 나오는 것은 개작2본, 3본이다. 이들의 내용은 같다. 또한 이 작품이 변형된 것이 「허수아비와 아기 참새들」이다. 이것은 제목, 주제, 내용이 완전히 바뀌고 『스크랩북 13권』에 자료가 나온 것으로 보아 변형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논문, 64~65면 참고.

44 강소천 동화의 꾸러기 인물들에 대해서는 신정아, 「강소천 동화의 아동상과 교육관—‘꾸러기’를 중심으로」, 『강소천』, 새미, 2015, 432~448면 참고.

새」에도 부합된다. 여기에서의 갈등은 아이들이 참새를 쫓아내려고 허수아비를 설치하면서 발생한다. 허수아비를 무서워하거나 용감한 척하는 참새들도 있지만, 우습게 아는 참새도 있다. 아이1은 허수아비를 우습게 아는 참새들을 멋지게 골려주기 위해 허수아비로 위장한다. 이것은 허수아비 변장 놀이다. 겁쟁이 참새1은 허수아비를 눈 뜬 장님이라며 놀리다가 아이1에게 붙잡힌다. 그러나 아이1은 참새1로부터 논밭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으며 참새1을 용서해준다.

「허수아비와 참새」는 농촌 자연을 배경으로 삼아 아기 참새들과 어린이들이 장난치며 노는 순수한 유희의 세계를 그린 희극이자 우화극이다. 참새를 쫓아내려는 인형-허수아비를 대신해서 아이들이 사람-허수아비로 변장하여 참새를 호통 치는 모습은 재미있다. 어린이들이 참새를 생포하긴 하나 풀어줌으로써 어른 세계의 생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죽음이나 공포와는 전혀 질감이 다른, 희극적인 관용이 지배한다. 유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작가는 놀이성 또는 오락성을 강조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와 놀이를 적극적으로 차용한다.

극의 도입에서 참새4는 「니팔꽃」 노래의 곡조에 맞춰 아이를 조롱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의 내용은 늦잠 자다가 야단맞은 아이가 등교하는 길에 참새4가 그 아이를 따라가며 조롱한다는 것이다.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햇님이 방긋 웃는/늦은 아침에/우리 집 도련님/학교 갑니다./잠꾸러기 우리 도령/늦잠 자다가/엄마한테 야단맞고/울며 갑니다.”⁴⁵ 극의 도입부의 노래는 이 극을 밝고 경쾌하게 만들어 어린이-관객의 흥을 돋워주고,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참새와 아이의 갈등을 암시해주시기도 한다. 또한 참새5는 계집애들이 하는 놀이를 보고 흥내를 낸다. 일명 ‘고드라 뽕’⁴⁶

45 「허수아비와 참새」, 『강소천 아동문학독본』, 을유문화사, 1961.12, 333면.

이다. 참새는 “한 알 때 두 알 때/영-남 거-지/팔 때 장군/노루 사슴이/범이 늑대/잡아먹었냐/못 잡아먹었다/고드라 뽕!”⁴⁷이라며 동요를 부른다. 이 놀이는 아이들이 다리를 엮걸어 뺨은 채 이런 소리를 해 가며 끄트머리 도둑놈을 가려내는 아이들의 놀이다.⁴⁸ ‘고드라뽕’이라는 놀이가 없어도 극의 흐름에는 지장이 없으나, 작가는 사라져가는 여자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가져와 참새들이 즐기게 함으로써 어린이-관객에게 놀이에 대한 관심과 흥미, 동요를 따라 부르게 하는 합창을 유도한다.

극의 중반에 가면 참새3과 5는 겁쟁이 참새1과 4에게 허수아비를 바보라 놀리면서 용기를 내라는 노래를 부른다. 아이들에게 잘 알려진 동요 「꼬마 눈사람」의 곡조에 맞춰 참새3이 노래하고 참새5가 노래를 받는 대창(對唱)의 형식을 취한다.

참새3 귀만 먹은 줄 알아? 눈도 안 보일걸…… 안경을 씌워봐! (웃고 나서 한번 툅하고 건들여 본다) 하하하……이런 바보 좀 봐! 바보를 무서워하는 것은 바보의 바보란 말이야!

(노래를 부른다)

하루 종일 우두커니

허수아비아!

누구를 쫓으려고

서만 있느냐?

큰 소리도 못 지르는

46 작가는 이 작품에서 ‘고드라 뽕—’이라 표기하였으나, 다른 문헌에는 ‘고드래뽕’으로 표기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두 가지가 다 발음된 듯하다.

47 「허수아비와 참새」, 위의 책, 334면.

48 「강대택의 일송달송 우리말」, 『전북일보』, 2008.2.15. 이 놀이에서 파생되어 ‘고드래뽕’은 술래 따위를 정할 때 세던 말의 끝말이고, 하던 일이 다 끝남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한다. ‘끝장’, ‘마감’의 뜻.

허수아비야!

(‘꼬마 눈사람’ 곡에 맞춰서)

참새5 (노래를 받는다)

뭐가 뭐가 무섭다구

허수아비를

가까이 못 오는 건

바보 겁쟁이

모두 와서 놀려 주자

허수아비를—⁴⁹

노래와 놀이의 적극적인 활용은 강소천이 이전의 아동희곡들에서 보여준 창작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 작가는 아동희곡에서 중시했던 종교성과 교훈성을 배제했을 뿐만이 아니라 노래와 놀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극의 흥미를 제고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극작술 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좀더 근원적으로는 어린이-관객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바뀐 것이고 어린이에 대한 아동희곡 작가로서의 태도가 바뀐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관객에게 특정 종교의 진리와 신앙을 심어줘야겠다는 태도는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신앙인의 태도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 또는 전도자의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때 어린이-관객은 특정 종교를 믿기를 바라는 전도의 대상자다. 어린이-관객에게 생활의 윤리나 올바른 심성을 가르쳐야겠다는 태도는 도덕가-교사의 태도다. 여기에는 도덕가-교사의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때 어린이-관객은 좋은 심성을 기르고 도덕

49 「허수아비와 참새」, 위의 책, 337면.

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고, 그런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교육의 대상자다. 그러나 「허수아비와 참새」의 어린이-관객은 특정 종교의 대상자도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다. 그저 농촌 자연을 배경으로 참새들과 대화하며 장난치며 노는 꾸러기들이다. 이것은 강소천이 작가로서 어린이-관객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어린이들은 수동적인 관객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즐긴다. 어린이들은 기꺼이 오락의 정신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어린이들은 지루하면 쉽게 알 수 있고 직접적인 관객 참여에 반응하는 관객들이다.⁵⁰

5. 맺음말

본고는 기존에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강소천의 아동 희곡을 연구하였다. 강소천이 아동희곡을 창작한 출발점과 기독교적인 배경을 살폈고, 작가의 세계관과 주제의식, 어린이-관객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의 아동희곡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현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강소천이 아동희곡 창작과 아동극에 대해 관심을 가진 시기는 적어도 첫 창작 아동희곡 「비바람은 지나고」가 공연되었던 1936년 12월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아동희곡을 쓰고 공연했다. 이 사실은 그의 아동희곡의 세계를 규정하는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았던 그의 기독교 신앙은 그가 창작한, 대부분의 기독교 계통의 아동극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아동극들은 교회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염두에 두고

50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어린이 관객' 존재에 관해서는 David Wood·Janet Grant, *Theatre for Children*, Ivan R. Dee: Chicago, 1999, 16~20면 참고.

창작된 것들이다. 이점에서 강소천은 기독교계 아동극작가라 지칭할만하다. 기독교계 아동희곡의 창작은 종교색이 배제된 일반 아동희곡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의 결여를 반증한다.

아동희곡의 첫 번째 부류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작품들이다. 「비바람은 지나고」와 「박첨지와 산신령」은, 극양식의 톤과 색깔이 다르지만, 신자와 비신자의 대립 구도를 설정하여 기독교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비신자를 회개시키고 미신을 타파하려는 기독교 선교와 계몽의식이 뚜렷하다.

기독교 계통의 다른 부류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아동극들이다. 「기다리던 썬파 할아버지」와 「붙잡힌 썬타클로스」는 공통적으로 산타의 선물에 욕심을 내는 꾸러기들이 자신의 욕심과 나쁜 행동을 반성하고 산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들과 달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린이들이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인정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린이에게 올바른 도덕과 심성을 전달하려는 교훈극이다. 「새파란 태양」은 친구의 잘못을 감싸는 배려심과 정직한 마음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다. 「보물찾기」는 보물찾기 놀이를 모티프로 삼아 물건의 지나친 소유욕을 문제 삼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강조한다. 두 작품은 교사-작가가 전하는 교훈과 계몽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상의 두 부류의 희곡들은 대부분이 다소 갑작스럽고 작위적인 결말로 끝나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비바람은 지나고」에서는 아버지가 삼성을 구출하는 행위가 갈등을 해결한다. 「박첨지와 산신령」에서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박첨지가 쉽게 산신령의 말을 듣고 예배당으로 간다. 「기다리던 썬파 할아버지」 역시 명수의 말만 믿고 아이들이 거지 할머니를 산타 할아버지로 인식한다. 「보물찾기」 역시 영자가 준비한 다른 선물로 갈등이 해

결된다. 이같은 결말 처리 방식은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고 어린이-관객에게 작가의 메시지를 주입하기에 편리하다. 그러나 작가가 전도사-작가, 교사-작가의 위치에서 어린이-관객을 수동적인 계몽과 교화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단점을 노출한다.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허수아비와 참새」는 이전 희극들과는 달리 매우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꾸러기인 아기 참새들과 어린이들이 장난치며 노는 순수한 유희의 세계를 그린 희극이자 우화극이다.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의 멜로디 차용과 사람이 직접 허수아비가 되는 변장놀이의 설정은 어린이-관객의 흥미와 재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이 작품은 강소천이 어린이-관객을 계몽과 교화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작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즐기는 대상으로 보게 해준다.

강소천이 기존의 한국 아동문학계에서 누려온 명성이 아동희극 또는 아동극의 분야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동희극 작가로서의 강소천은 한국 아동희곡사에서 그가 창작한 아동희곡을 통해서만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강소천이 교회의 크리스마스 기념 행사용 아동희곡을 주로 창작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크리스마스 아동극이 지니는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해도, 20여 년의 창작 생활 동안에 기독교의 관점과 범주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어린이의 세계를 극화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아동 희곡)

- 강소천, 「비바람은 지나고」, 『아이생활』, 1938. 12.
 _____, 교육극 「새파란 태양」, 『강소천 문학선』, 경진사, 1954.
 _____, 「기다리던 싹따 할아버지」, 『강소천 문학선』, 경진사, 1954.
 _____, 「보물찾기」, 『강소천 문학선』, 경진사, 1954.
 _____, 크리스마스극 「박침지와 산신령」, 유작 스크랩북 3권. 1954~1955년 추정
 _____, 대화극 「또 하나 다른 크리스마스」, 유작 스크랩북 3권. 1954~1955년 추정
 _____, 각색 「크리스마스 송가」(찰스 디킨즈 저), 유작 스크랩북 3권. 1954~1955년 추정
 _____, 「크리스마스 선물」, 이상만 연출, 유작 스크랩북 9권. 1957년 추정
 _____, 「허수아비와 참새」, 『강소천 아동문학독본』, 을유문화사, 1961. 12.
 _____, 「붙잡힌 싹타클로스」, 『조그만 하늘—강소천 문학전집6』, 배영사, 1963.

2. 논문

- 공선희, 「강소천 동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권영순, 「韓國兒童文學의 兩面性 研究:姜小泉과 李元壽의 幼年小說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김명희, 「한국동화의 환상성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김수영, 「강소천 동화의 특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김용희, 『韓國 創作童話의 形成過程과 構成原理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효진, 「강소천 동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남미영, 「강소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0.
 박금숙, 「강소천 동화의 서지 및 개작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4.12.
 박금숙·홍창수, 「강소천 동요 및 동시의 개작 양상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제25호, 2013.
 박상재, 「한국 창작동화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박숙자, 「1920년대 '아동극'의 발흥과 역사적 의미」, 『아동청소년문학연구』 4,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9.6.
 박영지, 「1950년대 판타지 동화 연구—이원수의 「꼬마 옥이」와 강소천의 「꿈을 꺾는 사진관」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13.
 박지은, 『동심주의문학 연구:첨부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선안나, 「1950년대 동화 아동소설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신정아, 「강소천 동화의 아동상과 교육관- '꾸러기'를 중심으로」, 『강소천』, 새미, 2015.
- 오길주, 「한국동화문학의 현실인식 연구」, 카톨릭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4.
- 윤소희, 『한국 아동문학의 가족서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선민, 「강소천 동화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임지연, 「한국 근대 아동극 장르의 용어와 개념 고찰」, 『아동청소년문학연구』 5,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9.12.
- 정선혜, 「한국기독교 아동문학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
- 정유경, 「한국 현대 판타지 동화의 문학 교육적 수용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차보금, 「강소천과 마해송 동화의 대비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 차보현, 「韓國 童謠․童詩에 關한 一研究: 1945年 以前을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69.
- 천희순, 「강소천의 장편동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
- 함윤미, 「강소천 동화의 환상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 홍의정, 「강소천 동화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3. 저서

- 김종희·김용희 편, 『강소천』, 새미, 2015.5.
- 박덕규, 『강소천 평전』, 교학사, 2015.6.
- David Wood·Janet Grant, *Theatre for Children*, Ivan R. Dee: Chicago, 1999.
- Louis E. Catron 저, 홍창수 역, 『희곡 쓰기의 즐거움』, 작가, 2011.
- 오스카 G. 브로켓·프랭클린 J. 힐디 저, 진준택·홍창수 역, 『연극의 역사』 I, 연극과인간, 2003.
- Winfred Ward, *Theatre for Children*, The Children's Theatre Press, 1950.

Abstract

A Study on So-cheon Kang's Dramas for Children

Hong Changsoo

This paper studies So-cheon Kang's dramas for children, which have never been studied before. The beginning of his writing of drama for children and his Christian background have been discussed, and then his dramas are classified into three distinct types and analyzed carefully according to the author's view of the world, thematic consciousness, and attitude toward the children-audience.

Based on the present records, it is assumed that So-cheon Kang's creative writing and interest on the theatre for children were started before December 1936 when he presented his very first drama for children, *Rainstorm passes by*. Working as a teacher of a Sunday school, he wrote and presented dramas. This fact is an essential part and a starting point of determining his world described in his works. Born in a Christian family and baptized as an infant, he developed his Christian faith which eventually related to most of the Christianity plays for children that he wrote. These theatres for children were deliberately created for the Christmas events of the church. In this context, So-cheon Kang can be surely called a Christian playwright for children. The creation of Christianity drama for children disproves

absence of interest compared to the ordinary drama for children which does not contain any religious impression.

The first type of his dramas for children aims to show the absoluteness of Christianity. Despite the different tone and mood of their theatre formats, two works, *Rainstorm passes by* and *An old man Park and a mountain god*, emphasize the Christian mission and spiritual enlightenment by setting up a confrontation between believer and non-believer, making the non-believer repent his sin, and ceasing superstitions with the absoluteness of Christianity.

The other Christian type includes dramas for children celebrating Christmas. The stories of *Santa Claus who children waited for* and *An arrested Santa Claus* have in common that kids, once greedy for Santa Claus gifts, atone for their greed and malicious behaviors and comprehend the true meaning of Santa Claus. Unlike these works, *A Christmas gift* depicts affectionate and warm-hearted children who feel sympathy for the poor and indeed consider them.

The second type is the morality play delivering moral ethics and upright mind to children. *The deep-blue sun* conveys a lesson that informs the importance of truthful mind and thoughtfulness which enables to embrace friend's faults. Applied the theme of treasure hunt game, *Treasure hunt* makes an issue of excessive acquisitiveness and encourages altruistic life. Two works absent of Christianity contain a voice of a teacher/author sending a message of enlightenment and moral lessons.

The two types of play mentioned above have a shortcoming in that their stories suddenly end with an artificial closure. Father conclusively solves the conflict by rescuing Samsung in *Rainstorm passes by*. In *An old man Park and a mountain god*, the old man Park, an anti-Christian, listens to the mountain god and readily goes to the chapel. Likewise,

the children in *Santa Claus who children waited for* recognize an old beggar woman as the Santa Claus by just believing Myung-soo's words. Also, the conflict in *Treasure hunt* is suddenly unraveled by the other gift prepared by Yung-ja. Such a way to finish the story is adequate to conclude a situation rapidly and easy to send the author's message to a children-audience. However, this approach reveals a fault that the author, in a position of a missionary/author or teacher/author, only regards children-audience as a subject of passive enlightenment and reformation.

The third type includes So-cheon Kang's drama for children, *A scarecrow and a sparrow*, which is quite a remarkable work different from the previous dramas. It is a fable comedy which depicts a pure and playful world where mischievous baby sparrows and children get funny with each other. Adoptions of melodies of children's favorite songs and a costume play that makes children act as a scarecrow not only make them interested and fun but also allow them to participate actively.

■ Keywords: So-cheon Kang, children's story writer, drama for children, theatre for children, Christianity plays, Christmas play, morality play, allegory play, children-audience, costume play, Rainstorm passes by, treasure hunt, Santa Claus who children waited for, A Christmas gift, An old man Park and a mountain god, An arrested Santa Claus, The deep-blue sun, An scarecrow and a sparrow

■ 논문접수일: 2018. 11. 15. / 심사기간: 2018. 11.22~12.02. / 게재확정일: 2018. 12.05.